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민족과 세인이 우리러 청송하는 절세의 위인이 탄생하시어 어느덧 102돌기의 년를을 새긴 뜻깊은 태양절이 왔다.

세상에는 민족적 및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명절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태양의 이름으로 빛나는 것처럼 크고 성스러운 명절은 없다.

태양절, 여기에는 오늘도 태양으로 빛나시는 하늘이 낸 위인을 모신 민족의 절없는 궁지와 영애가 비껴있고 현재위인의 애국의 크나큰 뜻과 업적, 위대한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여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동방조선에서 솟아오르신 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고공등서 력사의 갈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공적을 쌓은 이름있는 정치가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있지만 수령님처럼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신 그렇듯 절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은 없다.

일찍이 10대의 시절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시대 인간운명개척의 보검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의 불을 안아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혁명

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혁명의 주인을 인민대중이라고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밝혔다고, 이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도 하고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3년간의 반미대전도 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서서 인민의 이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신 수령님이시였기에 해방후 이처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었으며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알살하려고 미국이 15개의 추종국가까지 끌어들이면서 감행한 무력침공도 단호히 쳐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할수 있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크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우리도 그것을 사용할수는 없다고,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밥과 국을 먹기때문에 숟가락과 저가락을 조크로 음식을 먹는것이 제일 좋다고, 다른 나라의 전법도 이와 같은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고 통속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주체적립을 창조하시어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미제와의 전쟁도, 전후복구건설도, 사회주의공업화도 철두철미 조선식으로 해나가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고 떠들던 채터미숙에서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남들은 수백년이 걸렸다는 공업화의 력사적과제를 불과 14년만에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1960년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로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주체적로선이다.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대처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립장과 본때에 대한 원칙적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경제건설도 100%, 국방건설도 100%하는 원칙에서 밀고나가도록 해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의 존엄이 굳건히 수호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주, 신념과 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장이 있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자주정신의 강자로 자라났고 조선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가 확고히 선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이민위천, 이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에 관통되어있는 좌우명이고 정치신조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불멸의 굴발을 회고록의 갈피에 새겨넣으시여 후대들에게 귀중한 재부로 물려주신 김일성주석 이시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여도, 하나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여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서 출발하시였기에 언제나 대중의 지지를 받고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북방의 두메산골, 분계연선마을 등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찾아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이오신 현지도로정은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1회나 왕복한것과 맞먹는 144만 5 000여리에 달한다. 그 나날 수령님께서서 무려 2 530여일의 일요일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어 이 땅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애국의 한생이였다.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있었다.

민족의 원시조 단군신화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한 사실일것이라고 하시면서 단군이 물려있을수 있는 위치도 알려주시고 단군이 고조선의 시조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는 그러도 기뻐하시며 단군릉을 웅장하게 개건하도록 하시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력사를 더욱 빛내주신 수령님이시다.

외세의 강요로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실 변함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온 겨레를 묶어세워 거족적인 조국통일대행진을 합치게 추동해오신 어버이수령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애국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광복의 정치에 매혹되어 수많은 남녘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평양으로 달려왔고 통일이국의 길에서 값있는 생을 보낼수 있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우리들이 김일성주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는 어떤 리론이 아니라 그이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인류가 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시다.》고 청송하였다.

태양의 위엄은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승리하고있다.

언제인가 뜻깊은 태양절날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설속에 위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위인속에 전설이 있다고,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전설적영웅이시며 위인은 영생한다고, 수령님은 사상으로 영생하시고 업적으로 영생하시며 덕성으로 영생하신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조국과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그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신분이 바로 최세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민족자주위업을 령도하시는 길에 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탁월한 정치실력과 령도풍모를 체득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엄혹한 시련의 나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놓으시였다.

백두의 슬기와 기상,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강생로, 온 나라는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세계만방에 펼쳐지고 이 땅에는 6.15자주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펼쳐져

자주통일의 기운이 온 강산에 차넘칠수 있었다.

오늘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데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애국의 진로를 명시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빛나게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날로 가증되는 미제의 침략위협소동에 대처하여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최세의 위인이 계시어 조국의 존엄은 굳건히 수호되고 건설에서 최고전성기가 펼쳐졌으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어가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이룩되고 있다.

태양은 오늘도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그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속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래에 대한 락관과 승리의 신심을 가다듬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기세차게 전진해가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은 머지않아 천하제일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할아버님의 꿈이야기

만경대에 귀인이 내린다는 소문이 나돌던 그무렵 산당집 김보현할아버님의 꿈이야기가 마을사람들속에 전설처럼 나돌았다.

어느날 할아버님께서 밤에 신기한 꿈을 꾸시었는데 그 꿈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농가들의 굴뚝에 아침연기도 실리기전인 어둑새벽에 할아버님께서는 만경봉에 무저놓은 나무단을 저 내려오려고 사립문을 나서시였다.

사위는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캄캄하였으나 늘쌔다니신던 길이어서 헛갈리지 않고 오솔길을 따라 한결 음한결을 뚫아오르시였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산중턱에 이르시였을 때 갑자기 앞이 흰해져서 살펴보니 만경봉에서 무슨 빛이 흘러내리는것이였다.

어인 영문인가 결음을 다우치시여 봉우리에 올라오니 만경봉의 넓다란 공지

에 대엿자족의 등그런 방식이 놓여있었는데 거기서 눈부신 빛이 뿜어나와 주변을 환하게 비치고있었던것이다.

옛말에 금방망이란 말이 있었기에 혹시 금방망이가 아닌가 하여 자세히 살펴서던 할아버님은 또 한번 놀랐다.

그것은 금방망이가 아니라 분명히 금방석이었는데 그가운데 톼툼하게 생긴 옥동자가 집잡게 앉아서 만경대를 굽어보는것이였다.

할아버님께서는 옥동자의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불시에 안아보고싶은 충동이 일어나 두팔을 벌리면서 달려나가시였다.

그런데 그만 나무가지에 지게다리가 걸리였다.

할아버님은 안간힘을 쓰며 당기였는데 나무가지가 꺾여지는 바람에 무릎방아를 쪼개 되시였다. 그러나 옥동자를 잃을가보아 아픔도 잊고 벌떡 일어나보시니

꿈이었던것이다. ...

이 회한한 꿈이야기를 식구들에게 들려주시며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지난밤 꿈에 금방석에 앉아있는 옥동자를 보았는데 옛적부터 은은 달에 비기고 금은 해에 비기면서 은금을 보배로 여겨왔는지라 ... 이 산당집에 해가 뜰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다.》

자고로 위인, 명인들이 출생할 때에는 그와 관련한 기이한 일화들이 전해지곤 하였다.

아마 그래서 위인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범상치 않은 인물로 공인되는것인지도 모른다.

할아버님께서 그 신기한 꿈을 꾸신 때로부터 얼마후에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였다.

본사기자

멀리 떨어진 자식생각으로 잘못이루는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슬하를 떠난 자식이 어디에 가 밥술은 제대로 드는지, 옷은 철따라 입는지, 잘지는 않고 건강히 지내는지 늘 원심을 기울이는것이 육친의 정이다.

한평생 애국, 애족을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민족의 한식술인 해외동포들이 있

었다. 이역만리에 사는 해외동포들을 위한 국가예산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지난 세기 조국해방전쟁이 끝난후 전쟁의 참혹한 상처가 채 가시지지 않은 나라의 재정사정은 매우 심각했다. 어데서나 요구되는것은 자금이였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때 국가예산초안을 따져보신 수령님께서서는 재일동포 자녀들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를 상정시키시면서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고, 장학금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 두어서는 안된다고,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세계 그 어

느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국가예산항목이 나오게 되었고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 때나, 나라의 정세가 아무리 긴장할 때나 가림없이 년년이 그 항목은 꼭꼭 집행되였다.

재일동포자녀들이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라고 나라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60차례 걸쳐 473억 3 115만 390불에 달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들려주신 사랑과 은혜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주체78(1989)년 9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조국을 방문한 안동수렬사의 미망인인 재로씨야 정일심동포일행을 만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화기애애한 동포애의 정이 흐르는 오찬회석상에서 좌중을 일별하시 수령님께서는 문득 식탁 위에 안동수의 술잔을 하나 더 가져다놓고 술을 붓도록

하라고 이르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먼저 안동수동무를 추억하여 그리고 안동수동무의 부인과 아들, 딸, 사위, 손자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하시며 자신의 술잔을 안동수의 잔에 쟁으셨다. 비록 안동수동무는 수십년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고인의 술잔에는 한없이 숭고한 덕망과 고결한 의리가 담긴 사랑의 술이 찰랑거리고있었다.

민족의 님을 이은 사람이 라면 그가 어디에 사는 동포이든 집 떠났다 돌아오는 자식을 대하는 친부모의 정으로 할것을 기대하고있다고 하시며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또 선생과 부인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고 자식들이 조국에 대해서도 잘 알도록 하느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뜨거운 육친의 정을 기울이시였다.

평양에 있는 윤이상음악당에도 한 해외동포음악가의 재능과 소원을 헤아리시여 음악회도 열도록 하고요 음악연구소도 개설하도록 하시 수령님의 대해같은 동포애의 보살핌이 뜨겁게 깃들

